

# 국군간호사관생도의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경화<sup>1</sup> · 우정희<sup>2</sup> · 채덕희<sup>3</sup>

한림대학교 간호학부<sup>1</sup>, 건양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전남대학교 간호대학<sup>3</sup>

##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between Minority Groups and Nursing Cadets

Kang, Kyeong Hwa<sup>1</sup> · Woo, Chung Hee<sup>2</sup> · Chae, Duckhee<sup>3</sup>

<sup>1</sup>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sup>3</sup>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between minority groups and nursing cadet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entire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cadets. Data from 273 nursing cadets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ocial distanc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collective identity ( $r=.28$ ) and multiculturalism ( $r=.37$ ).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ocial distance and perceived threat ( $r=-.38$ ). Perceived threat, multiculturalism, collective identity,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minorities were identified as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The model explained 24% of the variables. **Conclusion:**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minority groups' nursing needs in the army, educational programs which help to reduce the perceived threat, to strengthen multiculturalism, and to establish a healthy collective identity of nursing cadets need to be developed.

**Key Words:** Social distance, Minority groups, Nursing cadet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총 1,710,896명에 이른다. 외국국적 동포도 689,897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이 593,96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으로 인해 국내로 이주해 살게 된 결혼이주민은 총 151,605명으로 남자 22,510명, 여자 129,095명이었고, 새터민은 1993년 640여명에 불과하였는데 20년이 지난 2013년 현재 26,123명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또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266,547가구, 9세~24세의 다문화 자녀수는 66,53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3].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한민족으로 비교적 단일한 문화 속에

**주요어:** 사회적 거리감, 소수집단, 국군간호사관생도

Corresponding author: Chae, Duckhee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60 Baekseo-ro, Dong-gu, Gwangju 501-840, Korea.  
Tel: +82-62-530-4942, Fax: +82-62-530-4544, E-mail: dheechae@jnu.ac.kr

Received: Oct 15, 2014 | Revised: Nov 17, 2014 | Accepted: Dec 16,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주류문화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유입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한다.

어느 사회든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고 그 사회의 다수 집단(majority group)과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한 사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 안녕감, 가치와 신념 등에 대해서도 다른 심리적 역동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집단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비주류 집단인 소수집단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게 된다[4].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그 사회에 갈등과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구성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5,6]. 때문에 간호사와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 정체성과 신념 및 생활양식에 존중하고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서 대상자를 이해하고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6-8].

다문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미국, 호주 등은 오래 전부터 간호학 영역에 있어서도 다문화 간호가 발전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호학 영역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간호와 관련된 연구들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집중되어 있다[9-11].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선행하는 여러 가지 변인과 사회현상 그리고 맥락적 환경에 대해 간호학적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군 조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가 있어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11년부터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군복무가 허용되어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군복무 대상자 수가 1만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12]. 또한, 국방부는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 청소년의 군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3]. 강력한 위계질서와 집단정신이 강조되는 군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 정체성과 신념 및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었던 가족

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군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수집단 구성원들의 건강상의 문제들이 집단 간 가치의 충돌이나 갈등 등으로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간 갈등의 주원인이 되는 편견과 관련된 최근 발표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학 또는 심리학 영역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의 실태, 편견적 태도로서 사회적 거리감과 영향요인, 그리고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 영향과 기전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4,5,14-16]. 선행연구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 소수집단과 접촉경험, 소수집단에 대한 이미지, 관련 교육 또는 봉사 프로그램 참여, 성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사회에 많은 시사점과 대안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간호학에서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17],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영향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다[18].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간호현장이 직면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관련 연구들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군 조직의 특성상 간호 대상자인 군인은 가족, 친구 등 익숙하고 친숙한 사회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과 간호장교의 관계는 일반적인 대상자-간호제공자와 달리 군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명확하며,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간호장교가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소수집단에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은 대상자와 간호제공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간호중재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우리사회 안의 또 하나의 사회인 군 조직에서 간호를 제공하게 될 미래의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소수집단을 이루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가정 자녀, 새터민,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간호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군 조직을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게

될 국군간호사관생도들이 가지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로서 사회적 거리감의 수준과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군간호사관생도의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군간호사관생도의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인 사관생도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학교당국 및 국방부 승인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허락을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자로부터 연구목적, 윤리적 고려 사항,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교수들이 연구자를 대신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대상자들은 원하지 않은 경우 설문을 거절할 수 있으며 참여시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고 도중에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에 설문지 작성요령에 따라 자가보고식으로 직접 기입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를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7월 6일부터 20일까지였으며 320부를 배부하여 280부를 회수하였고 이 가운데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27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

성 13문항, 집단정체성 4문항, 다문화주의 3문항, 위협감 5문항, 사회적 거리감 24문항(6개 집단별 4문항)으로 총 49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1) 집단정체성

집단정체성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한국형 집단자아존중 척도[19]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 이 도구는 총 4개 문항으로 ‘전반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가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전반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나의 자아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나의 자아개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역문항)’이었으며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63$ 이었고[3],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 2)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에서 다문화주의를 조사한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20]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4]. 3개 문항으로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집단이 있을수록 더 좋은 사회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화집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이었으며 6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66$ 이었고[4],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 3) 위협감

유럽 국가들의 인종적 편견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21] Hwang 등[22]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 가운데 이주로 인한 위협감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 문항으로 ‘소수집단의 증가는 우리민족의 고유문화를 위협할 수 있다’, ‘소수집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민족의 고유성을 잃게 될 것이다’, ‘소수집단의 증가에 따라 범죄율도 증가할 것이다’, ‘소수집단은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킬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등이었으며 6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 4) 사회적 거리감

Bogardus[23]의 사회적 거리감(친밀감) 척도에 근거하여 Kim 등[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 문항으로 각 집단에 대하여 '나의 가까운 가족과 결혼하는 것을 환영하겠다', '나의 집에 세를 들게 할 수 있다', '나는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다', '직장 동료로 받아들이겠다'이었으며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였고[3],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 분석(Scheffé test)을 하였다.
-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3세였으며, 1학년이 77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93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72명(26.4%), 천주교 55명(20.1%), 불교 53명(19.4%) 순이었다.

다문화경험 특성 가운데 해외여행 경험은 있다는 응답이 196명(71.8%)으로 많았다. 가깝게 지내는 소수집단 구성원이 없다는 응답이 218명(79.9%)이었으며, 접촉빈도는 1달에 1번

미만이 41명(15.0%), 1달에 1번 이상은 14명(5.1%)이었다. 소수집단과 결혼한 친족이 있는 경우는 28명(10.3%)이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가 있다는 응답이 232명(85.0%)으로 많았다.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96명(35.2%)이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소수집단을 주제로 한 교육은 47명(17.2%)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Table 1).

### 2.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점 가운데 집단 정체성은 4.67점, 다문화주의는 4.53점, 위협감은 3.14점이었(Table 2).

사회적 거리감은 전체 소수집단은 4.15점으로 한국인의 5.46점에 비해 낮았다. 총 5개 소수집단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와 새터민이 3.83점으로 가장 낮았고, 결혼이주여성 4.23점, 조선족 4.33점, 국제결혼가정 자녀 4.68점 순이었다(Table 2).

### 3.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깝게 지내는 소수집단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4.45점으로 가까운 소수집단 구성원이 없는 경우인 4.07점에 비해 높았다( $t=3.24, p=.001$ ). 또한 소수집단 구성원과의 접촉빈도가 1달에 1번 이상이 경우 4.78점으로 1달에 1번 미만(4.33점)이나 접촉이 없는 경우(4.07점)와 차이를 보였다( $F=7.05, p=.001$ ). 또한,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4.27점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4.09점)에 비해 높았다( $t=2.00, p=.046$ ). 그러나 학년, 종교, 해외여행 경험, 소수집단과 결혼한 친족, 외국어능력, 소수집단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4.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신념, 위협감,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계

사회적 거리감과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집단정체성( $r=.28$ ), 다문화주의( $r=.37$ )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위협감( $r=-.38$ )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집단 정체성이 높을수록, 다문화주의인 문화적 수용성이 높을수록, 위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친밀감)이 높았다.



**Table 1.** Demographic and Cultural Experience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27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20.3±1.37
	Year	1	77 (28.2)
		2	72 (26.4)
		3	65 (23.8)
		4	59 (21.6)
	Religion	Christianity	72 (26.4)
		Catholicism	55 (20.1)
Buddhism		53 (19.4)	
None		93 (34.1)	
Multicultural experience	Travel abroad	Yes	196 (71.8)
		No	77 (28.2)
	In contact with minority group members	Yes	55 (20.1)
		No	218 (79.9)
	Contact frequency	≥ 1/month	14 (5.1)
		< 1/month	41 (15.0)
		None	218 (79.9)
	Marriage of relatives with minority people	Yes	28 (10.3)
		No	245 (89.7)
	Ability in foreign languages	Yes	232 (85.0)
		No	41 (15.0)
	Volunteer work	Yes	96 (35.2)
		No	177 (64.8)
Participation in education program	Yes	47 (17.2)	
	No	226 (82.8)	

**Table 2.** Collective Identity, Multiculturalism, Percieved Threat, and Social Distance

(N=273)

Variables	M±SD	Min	Max
Collective identity	4.67±0.71	2.50	6.00
Multiculturalism	4.53±0.76	1.00	6.00
Perceived threat	3.14±0.91	1.00	6.00
Total social distance for 5 minority groups	4.15±0.78	1.70	6.00
Migrant workers	3.83±1.09	1.00	6.00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4.23±0.85	1.00	6.00
Children of couples in international marriages	4.68±0.83	2.00	6.00
North Korean refugees	3.83±1.09	1.00	6.00
Korean Chinese migrants	4.33±0.88	1.50	6.00
Social distance for Korean people	5.46±0.69	2.75	6.00

5.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1개 요인, 다문화 관련 특성 7개 요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점 특성인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 등 3개

요인을 포함하여 총 11개 요인을 투입하여 사회적 거리감 회귀모형을 산출하였다. 11개 요인 가운데 종교와 소수집단 구성원 접촉빈도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고, 나머지 변수는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 구축을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확률은 .05을 기준으로 변수를 선택하

**Table 3.** Comparison of Social Distance according to Participant Characteristics

(N=2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é)
Year	1 year	4.28±0.79	1.53	.208
	2 year	4.01±0.83		
	3 year	4.17±0.83		
	4 year	4.12±0.64		
Religion	Christianity	4.11±0.77	0.48	.694
	Catholicism	4.09±0.89		
	Buddhism	4.25±0.79		
	None	4.15±0.73		
Travel abroad	Yes	4.17±0.78	0.91	.364
	No	4.08±0.79		
In contact with minority group members	Yes	4.45±0.89	3.24	.001
	No	4.07±0.74		
Frequency of contact with minority members	≥ 1/month <sup>a</sup>	4.78±1.02	7.05	.001 (a > c)
	< 1/month <sup>b</sup>	4.33±0.83		
	None <sup>c</sup>	4.07±0.74		
Marriage of relatives with minority people	Yes	4.40±0.80	1.79	.075
	No	4.12±0.78		
Ability in foreign language	Yes	4.17±0.80	0.98	.327
	No	4.04±0.70		
Volunteer work	Yes	4.27±0.80	2.00	.046
	No	4.09±0.77		
Participation in education program	Yes	4.28±0.91	1.11	.273
	No	4.12±0.75		

**Table 4.** Correlations of related Variables with Social Distance

(N=273)

Variables	Social distance	Collective identity	Multiculturalism	Perceived threat
	r (p)	r (p)	r (p)	r (p)
Social distance	1			
Collective identity	.28 (< .001)	1		
Multiculturalism	.37 (< .001)	.29 (< .001)	1	
Perceived threat	-.38 (< .001)	-.23 (< .001)	-.32 (< .001)	1

였고, .10을 기준으로 변수 제거를 시행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정으로 공차한계가 .84~.9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02~1.19로 10보다 작아 투입된 변수들은 상호독립적이었다.

사회적 거리감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22.28, p<.001), 위협감, 다문화주의, 집단정체성, 소수집단 구성원 접촉빈도 등 4개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들 4개의 변수로 구축된 회귀 모형의 사회적 거리감 설명력은 24%였다. 이 가운데 위협감의 설명력이 14%로 가장 높았고, 다문화주의 7%, 집단정체성 2%, 소수집단 구성원 접촉빈도 1% 순

으로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5).

##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군인이라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게 될 미래 간호인력인 국군간호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같은 가치들이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Social Distance

(N=273)

Variables	Adjusted Cum R <sup>2</sup>	Partial R <sup>2</sup>	B	β	t	p
Perceived threat	.14	.14	-0.23	-0.26	-4.62	< .001
Multiculturalism	.21	.07	0.24	0.24	4.09	< .001
Collective identity	.23	.02	0.15	0.14	2.45	.015
Frequency of contact with minority members	.24	.01	0.45	0.13	2.40	.017

먼저, 국군사관생도의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은 6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각각 평균 4.67점, 4.53점, 3.14점으로 나타났다. 소수집단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던 국내 선행연구들 [14,16]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집단정체성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다문화주의는 다소 높게, 위협감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척도의 적용이 다소 상이하야(5점 척도 기준) 비교에 제한점이 있다. 집단정체성은 다양한 집단이 한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에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집단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사회에 적응해 가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집단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타 집단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 행동을 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24,25]. 또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하고 위협감은 소수집단의 국내 이주에 따른 현실적 갈등 인식의 일부를 의미하므로 기술된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에 비하면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성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5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결과 친밀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였고 조선족,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와 새터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다른 연구들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강원도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순으로 보고하였다[18]. 일반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결혼이민자, 조선족, 외국인노동자 순으로 친밀감이 높았다[15]. 또한, 일반 한국인 성인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순으로 나타났다 [4]. 2011년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군 입대가 허용되었으며 최근 국방부가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 청소년

년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3]. 이러한 시점에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친밀감이 높은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새터민에 대한 친밀감이 낮은 것은 다소 우려가 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5.46로 조사되어 소수집단 가운데 친밀감이 높았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4.68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새터민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해야만 하는 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의 반영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 간 대립이라는 안보적 상황에 따른 군 조직 내 다양한 정신교육 등의 영향일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로 편견적 태도를 갖게 되는 기전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까이 지내는 소수집단 구성원이 있는 경우, 소수집단 구성원과 접촉 빈도가 1달에 1번 이상인 경우,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즉,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4,17,18]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대학생활에서 교과과정과 교과 외 활동에서 소수집단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집단정체성과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거리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집단정체성이 사회적 거리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를 수용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24,26].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정체성을 조사한 결과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집

단정체성과 편견적 태도인 사회적 거리감과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반하는 결과이다. 국군간호사관생도들은 학교생활동안 집단의식을 중요한 덕목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므로 집단정체성이 강한 것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사관생도로서 높은 집단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심리의 한 면인 사회적 거리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가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 도구의 제한점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검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보았는데 [27], 다문화주의와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소수집단의 이주로 인한 위협감은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하나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편견적 태도로 발전하게 된다는 주장들[5,16]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소수집단에 대한 집단정체성이나 위협감은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다문화주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사회의 군 조직은 구성원들로 다양한 소수집단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위협감, 다문화주의, 집단정체성, 소수집단 구성원의 접촉빈도 등 4개 요인이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24%였다. 간호대학생인 동시에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소수집단의 편견적 태도로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행연구들과 비교 고찰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몇 편의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4,16]. 영향요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던 변수는 선행연구와 같이 위협감으로 나타났다[14,16]. 영향요인의 설명력의 정도를 논외로 하고 확인된 4개의 영향요인은 교육과정에 개입하여 프로그램들을 정교하게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간호학 영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된 초기 탐색적 연구로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집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라고 본다면 간호학 영역에서도 소수 집단에 대한 다수집단의 태도, 의료인으로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 등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모형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훨씬 깊이 있고 다차원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변수들을 측정함에 있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적용이나 측정방식이 상이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즉, 간호학 영역에 적합한 도구로 정련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결론

다문화사회로 진입과 더불어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과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수용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미 군 조직에는 소수집단들이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인력들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이에 기반한 간호를 제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준비해야 할 간호사의 핵심 역량으로 문화적 역량이 강조되어 왔다. 이를 위해서 간호사를 배출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개입하여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문화적 역량을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 역량에 선행되는 소수집단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간호학적 관점에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연구의 초기단계로 탐색적 연구에 그쳤다는 제한이 있으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기관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래 이 사회의 간호사인 군 간호사관생도와 간호대학생이 4년의 교육과정 안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위협감을 감소시키고, 다문화주의를 강화시키며, 집단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해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간호학적 관점에서 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사회 심리적 역동을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정립된 이론이나 모형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Korean Immigration Service. Korean immigration service monthly statistics 2014-01 [Internet]. Seoul: Korean Immigration



- Service; 2014. [cited 2014 October 7]. Available from: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146&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7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146&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7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2. Wikipedia. North Korean defectors [Internet]. [cited 2014 October 7]. Available from: <http://ko.wikipedia.org/wiki/%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4. Kim HS, Kim DY, Shin H, Yi J. Psychological adaptation of Koreans in the multicultural era: The effects of social Identity, acculturation-related ideologies, and intergroup contact on prejudice against migra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1;25(2):51-89.
  5. Kim HS. The Effect of values on prejudice toward minority group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7;21(4):91-104.
  6. Leininger MM. *Transcultural nursing: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New York, NY: McGraw-Hill; 1995.
  7. Roy C, Jones DA.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7.
  8. Leininger MM, McFaeland MR. *Culture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A worldwide theory for nursing*. 2nd ed. Burlington, MA: Jones & Bartlett Learning; 2006.
  9. Chae DH, Park YH, Kang KH, Lee TH.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2;18(1):76-86. <http://dx.doi.org/10.1111/jkana.2012.18.1.76>
  10. Lee EJ, Kim YK, Lee HK. A study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12;23(2):179-188.
  11. Yang SO, Kwon MS, Lee SH.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visiting nurses and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12;23(3):286-295.
  12. Jeon HS. Era of multicultural armed forces..... 12,000 solders in 2028. *Chosunilbo*. June 12, 2012; Sect. Society-Defense. Available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2/2012061200169.html?news\\_Head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2/2012061200169.html?news_Head1)
  13. Yun SH. Ministry of Defence is pushing the allowance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s military services in accordance with 'multicultural army'. *Dongailbo*. May 13, 2012; Sect. Politics. Available from: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514/46219752/1>
  14. Park JS. The analysis of social distance among early adolescents in the multicultural era.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2012;60(4):1015-1044.
  15. Lim DK, Kim CS. A study on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antecedent factors: Focusing on social distance, image of foreign residents, and qualifications for being a Korea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011;19(1):5-34.
  16. Yang KM. The influence of Korean ethnic identify upon the multicultural receptiveness of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009;20(4):387-422.
  17. Kang HY, Han SY. A study on social distance of nursing students toward minority groups in a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3;27(1):166-178.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1.166>
  18. Jung HY. The factors affecting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Chuncheon: Hallym University; 2014.
  19. Kim HS. Korean collected self-esteem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994;8(1):103-116.
  20. Verkuyten V. Ethnic group identification and group evaluation among minority and majority groups: Testing the multicultural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5;88(1):121-138. <http://dx.doi.org/10.1037/0022-3514.88.1.121>
  21. EU Monitoring Centre.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2005.
  22. Hwang JM, Kim ES, Lee MJ, Choi H, Lee DJ. Research on multiethnic · multicultural orientation of the Korea socie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23. Bogardus ES.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1925;9:299-308.
  24. Pehrson S, Vignoles V, Brown R. National Identification and anti-immigrant prejudice: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 of national defini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2009;72(1):24-48. <http://dx.doi.org/10.1177/019027250907200104>
  25. Phinney JS, Alipuria L. Ethnic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in four ethnic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1990;13(2):171-184. [http://dx.doi.org/10.1016/0140-1971\(90\)90006-S](http://dx.doi.org/10.1016/0140-1971(90)90006-S)
  26. Maddens B, Billiet J, Beerten R. National identity and the attitude toward foreigners in multi national states: The case of Belgiu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000;26(1):45-60.
  27. Berry JW. Mutual attitudes among immigrants and ethnocultural group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06;30(6):719-734. <http://dx.doi.org/10.1016/j.ijintrel.2006.06.004>